

이공계 기술인력 현장연수 100억원 지원

산업자원부는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고 산업기술인력을 개발하기 위한 2007년 <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>에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.

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들에게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기술교육 기회를 6개월 내외의 기간동안 제공함으로써 이공계 대졸인력의 취업을 지원하는 산업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, 산업기술인력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연수 희망기관을 신청·접수(2007년 1월 12~26일)하고 연수기관에 대해 평가 및 선정(2월 중순)할 계획이다.

선정된 연수기관은 3월 연수생을 모집·선발해 연수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.

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수생 자격은 이공계 대졸(전문대 및 대학원 졸업 포함) 미취업자로 공고일 현재 만 32세 이하인 자이고, 연수생에게는 연수기간(6개월 내외) 중 1인당 월 30만~50만원의 연수수당을 지급하게 된다.

특히, 2007년부터는 원호대상자, 장애자, 생활보호대상자, 지방대출신자, 여성인력, 2년 이상 장기실업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취약계층 취업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연수기관은 이공계 졸업생을 전문적으로 교육·훈련하고 관련기업에 연수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자치단체(기업·연구기관·대학공동협력), 기타 전문기술인력 양성 기관·단체로 사업 전담인력이 3인 이상 편성돼 있어야 한다.

연수기관은 경쟁공모를 통해 선정하며, 선정된 연수기관에는 강사료, 연수전담인력 인건비 및 교재 제작비 등이 지원된다.

이공계 연수사업은 2003년 이공계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래 2006년까지 총 1만3580명의 연수생을 선발해 1만355명을 취업시킴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.

<화학저널 2007/01/12>